

■ '사부대중공동체' 창립준비위 제1차 토론회 "재가자 참여로 대승불교 구현"



◇현웅스님

지난해 조계종 사태 때 결성됐던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가 20일 조계사 교육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공식해산. '미래를 열어가는 사부대중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웅스님이 '불교계의 현실 진단과 대안의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은 발제 요지. <편집자 주>

한국불교는 교리상의 역사적 전통은 대승불교이지만 현실적 교단모습은 승단과 신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상좌부사대의 모습이다. 이는 사찰과 교단을 승단이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해 온 한국불교 교단사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통과 관행이 오늘날 엄청난 종단적 업무에도 불구하고 재가불자나 신도들로 하여금 사찰운영이나 종단운영에서 배제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불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부대중공동체'가 필요하다. 사부대중공동체란 오늘날 교단이 역사적 유산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책무 때문에 소홀하거나 방기하고 있는 불교본연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대승보살의 일원으로서 사부대중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한국불교의 역사적 유산을 관리운영하는 제도적 시스템으로서의 '종단'이라는 틀에 사로잡히거나 연연함이 없이, 종단이라는 틀을 뛰어넘는 논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부대중공동회의는 정치적 의미에서는 하나의 회의체이지만 그 참여 구성과 성격상 이상적인 대승불교 정신을 실현하는 공적 공동체(公議의 共同體)이다. 출가승단과 재가불자가 회의의 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깨달음의 영역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역사의 영역과 결합되어 조화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부대중공동회의를 통해 각자의 영역을 살찌우며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작업들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강화 화개사 섬어린이 서울나들이

"조계사 부처님 얼굴이 참 예뻐요" "벽화는 그림이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경기도 강화군 고동도에 위치한 화개사(주지 운진)는 19회 섬마을 어린이 서울나들이를 실시했다. 3박4일간의 수련회 일환으로 가진 이날 서울나들이에는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조계사를 둘러보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용가리'를 관람했다. 어린이들은 사찰의 이모저모에 대해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무심치도 않고 흥미를 더하며 즐거워했다. 운진스님은 "흥미 위주의 수련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배움의 장을 마련,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교차로

결식 이웃돕기 후원사업 시작
법정 '맑고 향기롭게' 회주 스님은 8월부터 결식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을 돕기 위한 후원사업을 시작한다. (02)741-4697

유치원 교사 수련회
정인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장 스님은 7월31일~8월2일 하동 쌍계사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제 26회 수련회를 개최한다.

호국홍무사에 불서등 지원
대은 태고종 인천종무원장 스님은 최근 종교평화사제가 발생한 백령도 유일의 사찰 호국홍무사 지원에 나서 초, 향 불서, 포교용 게임기 등을 전달했다.

해인불교경전대 첫 졸업식
수진 부산 해인정사 주지는 20일 해인정사 부설 해인불교경전대학 제1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2백명의 첫 졸업생이 배웅됐다.

꿈에 한국사찰 개원
반월 부산 연등사 주지는 8월8일 미

국령 광도에 한국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관해정사를 개원하고 부처님 집안식을 봉행한다. 이날 하오에는 교미불자들과 함께 천도재를 지낸다.

관의경찰서 경승실장에
광욱 서울 약수사 주지(비구니)는 20일 경승단으로부터 관의경찰서 경승실장에 위촉됐다.

'우리문화 역사기행' 행사
박철언 자민연불자회 회장은 8월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청년조직원들과 함께 '우리문화역사기행'을 떠난다. '우리문화역사기행'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신도운동 오색' 세미나
신진규 전국신도회장은 8월10·11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세미나 및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단군사상과 불교사상' 강연
김지하 시인은 8월7일 조계사 열린

조계종직할 총회의원 현각스님 당선



23일 실시된 조계종 직할교구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현각스님이 당선됐다. 현각스님은 회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 71년 사미계, 7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며, 영월 보덕사 주지등을 역임했다. 현 원주 상불원 원장, 월정사 사회국장.

강연회에서 '단군사상과 불교사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02)720-1390

불교유치원에 놀이기구 보급



김동일 美 L.A. 관공사 연화랑 부관장은 최근 국내에 미국 수입교구 및 놀이기구 회사인 샘즈 코리아 부장으로 임명돼 불교유치원에 질 좋은 놀이기구를 보급한다. (011)9012-9873

'군여' 연구로 동대서 석사학위



조준규 경찰청 수사국 경정은 최근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군여의 화엄사상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사
조계종
◇총무원(7월 19일자) ▲기획국장 정도스님 ▲호법국장 법승스님

조계종 교육원 3개 위원장 선출



교육·법산, 교재편찬·무관, 역경·장산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9일 교육원에서 교육위원회의를 연데 이어 20일 교재편찬·역경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명단 본지 23호 참조>
올해 처음으로 열린 각 위원회에서는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을 교육위원장에, 무관스님(법계사 주지)을 교재편찬위원장에, 장산스님(동명불원 주지)을 역경위원장에 각각 선출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카오스이론은 화엄사상과 같아"

김용운교수 새시대불교포럼서 강연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한국수학문화연구소장)는 20일 조계종 포교원 4층에서 열린 새시대불교포럼 7월 월례 발표회에서 '카오스이론과 불교'에 대해 강연했다. 김 교수는 "카오스 이론은 과학의 세계정복이 아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한 공존과 화합에 그 기본틀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카오스 이론은 모든 것을 전체 속의 부분으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한 불교의 화엄사상과 일치하는 특색을 지닌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카오스 이론은 개인과 사회가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사상과 다를 바 없으며, 화엄불교는 이미 카오스 이론의 근본원리를 꿰뚫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지력났다고 사회활동 막아서야"

저서적인 대상 강좌 여는 미영순씨
"저서력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시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는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것보다 매우 열악합니다. 이들이 일반인들과 같은 학력과 직업을 갖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저서력인연대 대표 미영순씨(현대종교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이런 생각에 지난 22일 저서력 초·중·고등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 1개월, 3개월 과정의 컴퓨터와 한글교실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부터는 후원의 고마움을 회향한다는 차원에서 후원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회화, 중국어, 교양한문 등의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강사는 각 부문 전공자인 저서력인들이 맡고 있다. "저서력인들은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학습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강좌는 그런 저서력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들은 약간의 지력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일을 맡겨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씨는 저서력인들도 일반 사람들과처럼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저서력인연대 3백여 회원은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당에게는 '확대 및 융성지원 프로그램'과 확대독서기, 확대경 등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각종 보조기구를 무료로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02)593-3396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Focus
"외국인들은 반가부좌를 뜬 채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 5분~10분 정도 참선하는 것이 적당하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과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19일 관광회사 인원 및 외국인 가이드 40명을 대상으로 2시간용 외국인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했다. 조계사 상임법사 증사스님의 안내로 열린 이날 시연회는 사찰 소개, 사찰예절 실습, 참선 및 다도 실수 등으로 이뤄졌다. 가이드들은 삼도가 무엇이고, 참선시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지하게 실습에 임했다. 이번 시연회는 한국관광공사의 신규관광상품 설명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김재경 기자

전통식품지정업체
0598-945-0075~7
삼부농산
경남 거창군 유평면 삼부리

새로운차, 꼭 드셔야 할 차
귀한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향토삼백초
향토삼백초와 함께 몸도, 마음도 맑아진다.
- 향토삼백초차, 신농차 -

신비의 약용식물 향토삼백초
어떠한 병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향토삼백초는 신비한 약용식물이다. 향토삼백초는 신비한 약용식물이다. 향토삼백초는 신비한 약용식물이다.

몸과 정신의 기를 맑게 정화시켜주는 향토삼백초차, 신농차
·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신장기능을 향상시킨다. · 몸속이 정화되어 면역력 증진 작용을 한다.
· 피를 맑게하고 맑은 피를 순환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 위장기능을 증진시켜 속을 편안하게 하고 피로해소를 돕는다.
· 이온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 차를 자주 드시는 분 · 여성에 의하여 인체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분 · 스트레스와 숙이 과잉되어서, 관계가 어려운 분 · 어린이가 자주 앓고 있는 분 · 피부미용과 여성건강으로
· 고령하시는 분 · 빈혈증에 시달리시는 분 · 식수공해가 염려되는 분 · 중이 작용으로 인공신장 분

특징
· 비독성 약성분 함유로 어린이와 노인에게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 향토삼백초 차를 마시는 것은 신장기능이 좋아진다.
· 피를 맑게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
· 피를 맑게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
· 피를 맑게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

이용법
·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다.
· 신농차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 향토삼백초 차를 마시면 '삼백초차'입니다.

레이키 - 그날부터 기능력자가 되는 법 전수

레이키
세상의 여러 기공법과는 달리 누구나 그날부터 기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레이키(Reiki)입니다. 이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남미 여러나라, 인도를 포함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의 수백만명에 대한 전수 실적이 증명되고 있어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날부터 기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만 한가지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에게 전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에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전수 방법은 전통적으로는 명수(靈授)라고 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어블먼트(Attunement)라고 하고 있는데 어블먼트를 하는 능력에 레이키 마스터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높고 확실한 능력을 가진 좋은 마스터에게 전수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운이 좋게 될 수 있습니다. 내(박희준)는 레이키 마스터로서 높고 확실한 능력을 갖기 위해 2년에 걸쳐서 10여 차례나 일본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레이키 유종(流派) 여러 차례의 우스이치 레이키와 카루나 레이키의 레이키를 전수받았고 다른 나라로 전수되지 않은 극비의 전통적 레이키(靈傳)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어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 한국으로 레이키를 배우러 올 수 있게 하는 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키(氣)는 일본에서 태어나 (우스이치 카오스)가 창시) 사영에서 발전해 일본으로 역수입된 경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 인류의 '기공' 재산입니다. 레이키는 진정한 의미의 '무수명 에너지'이며 '사랑의 원형'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사는 재미를 모르고 살던 많은 사람들을 활력 및 행복감과 화해심이 넘치는 생활로 되돌려 주는 원형(元形)의 도구입니다. 전통적 의뢰와 힘을 함께 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는 원형의 도구입니다.

1. 레이키의 전수 절차
우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에서는 레이키 능력 전수단계를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전문 임상 응용단계', '제4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능력을 전수하고 있으며, 별도로 '카루나 레이키'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 제1단계 : 2일
(1) 1시간의 레이키 주입 (2) 2회의 어블먼트 (3) 발령법 학습 (4) 12포인트 자타치료법 (5) 오라크리닝법 (6) 차크라조정법 (7) 레이키호흡법 (8) 동식물치료법 · 에너지주입법
※ 전문 임상 응용단계 : 수일
(1) 3개월에 걸쳐서 실시되는 4회 이상의 어블먼트 (2) 우스이치 전통적 레이키요법, 완전한 레이키 요법, (3) 20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한 시간 단축 치료법, 발해 실습 (4) 열대치료법, 우스이치 전통적 용암 방울요법 (5) 전문적 레이키요법가가 되는데 필요한 새로운 임상 자료, 레이키관련 정보의 추가제공 (6) 사이키서지리(시미령수술)법
※ 카루나 레이키 :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미국의 레이키마스터인 윌리엄 랜드 씨가 1955년부터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한 새로운 레이키법이며 사람의 심신을 치료하는데 87가지 종류의 치료용 기공 우스이치 레이키 요법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공법입니다.

2. 지도자 : 박희준 (우스이치 레이키마스터 · 카루나 레이키마스터) 번역저술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퍼어선빌딩
* 반드시 미리 전화하고 오셔야 하며 공휴일에도 개별 지도합니다.